



바울과 디모데 (바울의 멘토링)

들어가면서

멘토링(mentoring)은 중세 길드의 장인(匠人)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었다. 견습생들은 수년에 걸쳐 숙련공 곁에서 관련된 기술은 물론, 그 세계와 관련된 모든 생활 방식을 배웠다. 오늘날의 남아공이나 유럽의 석박사 과정처럼 과거의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문이 전수되었다. 그러나 핵가족 사회와 산업 사회에서는 멘토링이 약화되어 간다. 수작업 대신 기계화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는 멘토링이 지속되고 있다. 1970년까지는 멘토링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밥 빌, 1997:27). 멘토링이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1978년 예일대학교의 Daniel Levinson교수의 *The Seasons of Man's Life*가 출판되면서 부터였다. 또한 1979년 *Harvard Business Review*가 성공한 사업가들의 대부분이 과거 그들을 멘토링하여 준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직장에서 멘토링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1. 멘토링이란 무엇인가?

우리말로 멘토링을 적절하게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렵다. 직장에서는 멘토

링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멘토(mentor)와 멘티(mentee 혹은 protee)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멘토링은 일종의 인간관계이다. 그 관계는 어떤 계약이나 거래 혹은 협정이 아니며, 인간 사이에 잘못된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법적인 관계도 아니다. 멘토링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인격교류로서, 대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베일을 벗고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낸 상태에서 삶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다(유화자, 1999:12).”

멘토는 사랑, 경험, 신뢰 그리고 지식으로 멘티를 잘 이끌어야 하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브린휴즈, 2007:52).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멘토는 영적으로 성숙하여, 멘티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잠재력을 믿고, 헌신적이며, 비 권위적-비 강압적이며, 때로는 자신의 약점도 노출할 수 있어야 한다(브린 휴즈, 2007:59-65). 멘토링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성경에서 멘토링을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와 마가, 바울과 디모테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멘토로서의 바울과 멘티로서의 디모테에 초점을 맞춘다.

2. ‘멘토’로서의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혹은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범위를 제한하여 바울의 멘토로서의 측면만을 살펴볼 것이다.

2.1. 목회자로서의 바울

2.1.1. 목사와 교사로서의 바울

바울 서신은 바울의 교회를 향한 목회적 마음을 담고 있다. 바울 서신이 목회적 돌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학적 강론을 한 사람이 아니다. 목회적 돌봄이라는 도약판이 없었다면 바울 신학은 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스스로 한번도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목사’라는 용어는 엡 4:11에 한 번 등장할 뿐이다. 그 구절에 ‘목사와 교사’에 하나의 정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가르치는 목사로 볼 수 있다.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주요 임무이다(행 20:28). 이 일을 바울이 충실히 감당했다는 점에서 그를 ‘목사’라고 부를 수 있다.

2.1.2. 교회 개척가로서의 바울

바울은 단지 목사의 역할만 감당한 것은 아니다. 개척가로서 그의 눈은 항상 미전도 지역을 향하고 있었다(롬 15:20). 교회 개척가로서 바울은 교회에게 물 주는(양육) 임무는 다른 동역자에게 맡기기를 원했다(고전 3:6). 이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도 남에게 맡겼다(고전 1:17).

2.2. 부모로서의 바울

2.2.1. 부모-자녀 관계

목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선호한 이미지는 부모-자녀의 관계이다. 바울은 고전 4:15에서 일만 스승보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고차원적이라고 밝힌다(빌 2:22; 살전 2:11).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의 아버지가 되었다(몬 1:10). 디모데와 디도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전 4:17; 딤후 1:4). 바울은

십지어 ‘어머니’ 이미지를 자신에게 적용한다(고전 3:1-3; 갈 4:19; 살전 2:7, 브린휴즈, 2007:53).

2.2.2. 바울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

고후 11:28-29에서 자녀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고후 6:11-13에서 바울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입과 마음이 넓게 열려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입’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 한다(빌 1:4; 살전 3:10).

2.2.3. 어머니로서의 바울

살전 2:7-8은 바울이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교회를 돌본 것으로 언급한다. 갈 4:19-20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갈라디아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한다. 고전 3:1-3은 초신자를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젖으로 먹었다고 말한다.

2.2.4. 아버지로서의 바울

바울은 마치 자신을 ‘대부’ (God father)로 비유하여 대부로서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다(고전 4:14-16). 흥미롭게도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설립한 교회에게는 자신을 닮으라고 권면했다(고전 4:16; 11:1; 갈 4:12; 빌 3:17; 살전 1:6; 살후 3:7,9). 바울은 아버지로서 성도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가졌다. 아버지 이미지 안에 교육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전 4:17; 엡 4:21; 골 1:28; 2:7; 살후 2:15).

바울은 격려와 교정을 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고전 4:14-21; 살전 2:11-12). 바울 당시 불신 세상에서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했고,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로서의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자녀로서 부모인 자신을 물질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을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후 12:14). 바울은 아버지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범을 보였다(살전 4:11; 살후 3:6-12). 복음 전파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기를 원했던 자비량 사역자 바울은 그 당시 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던 탐욕스런 견유학파와 달랐다(고전 9:12).

2.3. 바울의 목회적 돌봄

로마서 16장의 수고스런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공동체 뿐 아니라 개인을 돌본 사도임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라는 표현에서도 바울이 개개인에게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은 바울이 개인의 신앙 성숙에 힘썼다고 밝힌다. 바울은 공중을 대상으로 한 설교 사역은 물론 각 집을 방문했다(행 20:20). 바울은 이런 균형 잡힌 사역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도록 권면했다(살전 5:11). 주목할 것은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도모하려고 명령 대신 따뜻하게 권면했다는 점이다(롬 12:1; 15:30; 16:7; 고전 1:10; 4:16; 16:16; 고후 5:20; 6:1; 10:1; 13:11; 엡 4:1; 빌 4:2; 살전 2:11; 4:1; 5:14; 살후 3:12; 몬 1:8-9).

3. ‘멘티’ 로서의 디모데

바울 서신 가운데 여섯 곳의 서두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바울과 나란히 등장한다(고후 1:1; 빌 1:1; 골 1:1; 살전 1:1; 살후 1:1; 몬 1:1). 그 가운데 네 곳은 다른 동역자의 이름 없이 디모데만 거론 된다(고후 1:1; 빌 1:1; 골 1:1; 몬 1:1) 바울이 이 여섯 편외 편지를 보낼 때, 그의 곁에는 다른 동역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독 디모데의 이름만 거론한 것은 그가 영구적으로 바울의 사역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평생 동역자였기 때문이다(브루스, 1992:32).

터어키의 갈라디아 성의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현재 조스테라) 태생의 디모데는(행 16:1)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신앙과 경건 가운데 양육되었다(딤후 1:5; 3:15).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AD 48-51) 이전에, 구체적으로 AD 46-47년의 1차 전도여행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행 14:6-20). 유니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 디모데보다 먼저(혹은 디모데와 함께) 개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모데는 약 2-3년 만에 빨리 ‘제자’로 성장했다(행 16:1; 거쓰리, 1996:387).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할례를 행한 후, 행 16:3) 디모데를 실라와 더불어 동역자로 삼았다(행 15:36 이하).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 전에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와 거기서 30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칭찬 받는 자였다(행 16:2).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처럼 교회에 파송하기에 적임이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로(살전 3:2), 3차 전도여행(AD 52-57) 중에는 고린도로(고전 4:17; 16:10), 또한 바울이 에베소(혹은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는 빌립보로(빌 2:19) 다니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했다. 자연스럽게 디모데의 영향력은 아가야, 마케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까지 확장되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도 바울과 동행했

다(행 20:4-5).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는 디모데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옥중서신(빌, 골, 몬)의 서두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했다(딤후 1:3). 거기에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했다(딤후 4:12). 바울처럼 디모데도 투옥 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다(히 13:23).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시작으로 일평생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청년시절과 중년의 세월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바울 곁에 끝까지 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딤후 4:9; 조규통, 2009:27-28).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롬 16:21), ‘나의 사랑하는 진실한 아들’(고전 4:17), ‘주님의 일을 하는 자’(고전 16:10), ‘형제’(고후 1:1), ‘아들’(딤후 1:2, 18; 딤후 1:2), ‘하나님의 일꾼’(살전 3:2)이라 불렀다. 디모데는 다정했지만(딤후 1:4), 다소 겁이 많았던 것 같다(고전 16:10; 딤후 1:7).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겼다(빌 2:22). 빌립보서를 쓸 때, 디모데가 바울의 대필가였다면, 그는 이 부분을 받아 쓸 때 얼굴이 붉어졌을 것이다. 빌립보서가(에베소가 아니라 바울이 투옥된)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면 디모데가 편도 40일 거리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전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극진히 칭찬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마음 혹은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빌 2:5; 참고, 브루스, 1992:36).

4. 디모데전후서에 나타난 멘토링

디모데전서의 소위 ‘발전된 교회 조직’에 대한 언급은 AD 2세기 초의 ‘초기 카톨릭주의’를 반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디모데후서에는 교회 조직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에 도착한 연대는 AD 59년경인데(행 28), 2년 동안 로마에서 구금된 후 풀려난 후 즉 63-64년경에 디모데전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는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야 했다.

바울은 20대 후반 혹은 30살 정도였던 디모데를 아들뻘이지만 동역자로 대우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모의 사랑으로 돌보았다. 바울은 이론이 아닌 모범을 보였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멘토로 섬겼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박해를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딤후 3:10-11).”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자: “디모데가 결전장에 나가는 뜻내기가 아닌 것은 바울 자신이 이미 자신의 교훈을 오랫동안 가르침으로써 그를 단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리에 대해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생생하게 제시하는 ‘훌륭한 교사상’은 말로만 자신의 생도를 다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열어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향’의 뜻이다. 바울은 진지하고 위장되지 않은 성실성의 다른 실제적인 증거로서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제시하고 있다(칼빈, 1993:588).”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동고동락한 멘토와 멘티였다. 이 둘 사이에는 신뢰, 상호존중과 긴밀한 관계 및 헌신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었다. 바울은 뒤 따르는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서 ‘역사하는 말씀’을 언급하는데, 이는 진정한 멘토링은 멘토의 경험만으로는 안 되며, 성경말씀으로 됨을 알 수 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멘토링에서 중요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나타난 ‘감독의 자격’이다. 이 자격은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을 수행한 바울과 디모데에게 적용되었다. 다음은 ‘멘토 감독’ 바울이 ‘멘티 감독’ 디모데를 위해서 제시한 감독의 자격인데, 대부분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 선한 일을 열망하는 자여야 한다(*epithymeí, desires*, 1절). 즉 감독의 일을 하기 위한 열망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 즉 목회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

(2) 반드시 (*dei*)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unimpeachable*, 2절).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고, 평판이나 눈에 띄는 행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공격과 비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

(3)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어야 한다(*one-woman man*). 하나뿐인 아내에게 신실하며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성과 결혼의 영역에서 흠이 없는 자로서의 평판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바울은 미혼이었다.

(4)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2절). ‘절제하며’는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신중하며’는 지각을 갖추어 내면적으로 절제의 훈련이 된 것을, ‘단정하며’ (*kosmos, orderly*)는 절제가 외적으로 훈련된 것을 의미한다. 즉 외유 내

강형이 감독에게 어울린다.

(5)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절).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한다. 특별히 바울 당시의 순회 전도자의 숙식을 감독들이 제공해야 할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6)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절). 목사는 교사이기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

(7) 술을 즐기지(*paroinos*, one who sits long at his wine)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3절). 이사야 28장 7절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술에 취한 것을 비판한다. 술은 가르치는 자에게 적합하지 않고 건덕상 좋지 않기에 아예 금하는 것이 좋다.

(8) 구타하지 않고(*plekten*, without fighting), 온화하고 다투지 않아야 한다(3절). 목사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겸비할 때 관용을 베풀며 살 것이며 부정적(소극적)으로는 구타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투지도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감독은 육신의 혈기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

(9) 돈을 사랑치 않아야 한다(*aphilargyros*, 3절; 참고. 딤편 6:10).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으며 재정에 대해 자족하고 깨끗했다.

(10)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4절). 자기 집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5절).

(11) 새로 입교한 자(*neophytos*, a recent convert, 문자적 의미는 '새로 심은 나무')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6절). 회심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목회자로 곤란하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은 책임을 부여 받은 것으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다. 그 결과 마귀에게 내려진 심판과 똑 같은 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2)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7절). 불신자와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다면 쉽게 비방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

나오면서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를 지도자와 리더십의 부족으로 진단하는 것은 옳다(유화자, 1999:3). 하나님 중심으로 인성, 윤리, 도덕, 인간성을 강조하는 교육 보다는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대세를 이룬다. 여기에 대해 기독교 대안 학교와 홈스쿨링이 대안으로 부상된다. 그리고 현대인은 ‘기계 인간’ (*homo faber*) 즉 기술 문명에 의해 탄생된,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의 초상으로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인간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고뇌해 보아야 한다(제임스 휴스턴, 2004:163).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것은 다름 아닌 멘토링이다. 현대 교회에 멘토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자훈련이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밥 빌, 1997:50). 멘토 역시 사람이기에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멘티를 일평생 성경, 경험, 지혜, 겸손 그리고 신뢰로 잘 이끌어 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멘토 즉 숙련되고 신뢰할 만한 조언가를 먼저 양성해야 한다.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에 좋은 멘토를 갖지 못한 것은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와 같은 불행이며 비극이다(Daniel Levinson).” 바울과 디모테의 이상적인 멘토링은 현대 교회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시사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생산적인 멘토링’ 을 시도해 보자(딤후 2:2).

참고문헌

- Beasley-Murray, P. 1993. *Paul as pastor*. (In Hawthorne, G.F. et al.,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Leicester : IVP. p. 654-658.)
- 거쓰리, D. 1996. 『디모데』. (In Douglas, J.E., ed. 『새 성경 사전』. 서울:CLC. 387.)
- 밥 빌. 1997. 『멘토링: 사람을 세우는 22가지 원리』. 서울:도서출판 디모데.
- 브루스, F.F. 1992. 『바울 곁의 사람들』. 서울:기독교회사.
- 브린 휴즈. 2007. 『코칭 멘토링 제자훈련』. 서울:생명의 말씀사.
- 유화자. 1999. 『멘토링: 성경적 제자양육』. 수원: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제임스 휴스턴. 2004. 『멘토링 받는 삶』. 서울:IVP.
- 조규룡. 2009. “바울 공동체 연구”. 고신대 Th.M. 논문.
- 칼빈, J. 1993. 『디모데전후서』. 칼빈주석. 서울:성서교재간행사.
- 칼빈, J. 1993. 『사도행전 주석』. 서울:성서교재간행사.



로베르 올리베탕과 젊은 칼빈